

권두언 Preface

이환봉 | 교회개혁의 과제①: “오직 성경으로”

개혁교회 강단 The Reformed Pulpit

존 칼빈 (John Calvin) | 한 번의 가르침을 영원한 유익으로
(시편 119편)

이근삼 | 그리스도의 교회(마 16:13-28)

교회 개혁의 과제 1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개혁을 위한 신학과 신앙의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이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말해주는 바대로 이러한 교회개혁의 과제들은 중세 개혁자들의 시대에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50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신학적 사고와 신앙적 행위가 혼란과 미궁에 빠져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적 상황에서 교회개혁을 위한 이 다섯 가지 “오직”(sola)의 중요한 의미를 계속 하나씩 새롭게 확인하여 오늘의 교회개혁을 위한 과제로 삼고자한다.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은 우(右)로는 로마 가톨릭교(Roman Catholicism), 좌(左)로는 재세례파(Anabaptist)에 대항하여 “오직 성경”을 바른 신학과 구원을 위한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확립하였다.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로마 가톨릭교는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인간이성과 교회전통을 앞세웠고, 재세례파들은 성령으로부터의 직접적 계시에서 비롯되는 새 계시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 곧 신학의 유일한 표준과 원천으로 강조하였으며, 또한 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개혁하는 출발점과 최종적 권위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오직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인간의 이성과 전통이 신학의 원리(*principium*)가 되거나 성경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그 어떤 세속 철학과 사상에 대한 타협과 굴복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의 직무와 전통적 신조들을 무시하고 각 개인이 저마다 성경에서 믿을 바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루터는 그러한 개인주의(*individualism*)에로의 초대를 “각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물론 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였지만 초대 교부들의 신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구사할 수 있었다. 또한 개혁자들은 성경을 판단하는 인간 이성의 잘못된 사용은 단호히 반대하였지만 철학을 이용하여 신학을 명료화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유력하게 변증하는 노력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개혁자들이 이 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신학과 신앙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와 가르침에 항상 충실하게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이 성경의 인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서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에 대한 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성경의 완전무오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 중에 성경의 교훈과 명령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세상의 학문과 문화가 성경의 권위적 역할을 대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논리와 마케팅 전략이 교회성장을 위한 성경적 원리와 방법을 대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성경적 원리 대신에 수요자 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실용주의와 엔터테인먼트의 원리가 오늘날 교회의 예배, 설교, 전도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구속의 은혜가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호갈등과 내적 상처로부터의 단순한 심리적 치유와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여준다.

설교에서조차 성경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않고 성경 이외의 현대의 세속적 권위와 지혜에 의존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신에 성령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통하여 자신들의 체험과 감정에 기초한 주관적 확신을 직접적 계시의 차원에 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과 지식 그리고 다양한 세상 이야기로 혼잡케 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오늘날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의 원리를 떠나 기독교를 오히려 개혁자들의 항거대상이었던 인간중심적 종교로 되돌아 가게 만드는 교회타락의 현대적 양상에 해당된다.

교회는 시대적 요청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성경말씀을 제쳐두고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경영학적 생각과 필요를 따라 복음과 신앙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 신학적 반성 없이 물질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은밀히 기획된 현대교회안의 온갖 인위적인 조작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보다는 타락과 훼손으로 몰고 갈 것이다.

데이빗 웰즈(David Wells)는 「No Place for Truth (1993)」에서 저급한 현대사상과 문화에 아부하여 성경의 진리를 위한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교회는 이미

데이빗 웰즈(David Wells)는 「No Place for Truth (1993)」에서 저급한 현대사상과 문화에 아부하여 성경의 진리를 위한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교회는 이미 참된 교회일 수 없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성경의 진리를 떠나 너무 변질되어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된 교회일 수 없다고 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성경의 진리를 떠나 너무 변질되어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며 우리의 양심과 행위의 총족한 표준임을 재확인한다. 성경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진리와 참된 삶의 모든 법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과 반대되거나 독립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며, 개인의 영적 체험이 계시적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시대적 요구와 소비자의 감성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임의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유일한 원천과 구원진리의 유일한 선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직무를 믿는다.

우리는 오직 성경말씀을 따라 현대 대중문화의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짓된 시각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실제적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오직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한다.